

1과목 : 임의 구분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② 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 ③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변호사의 겸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 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변호사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변호사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④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사무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이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 ①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 ②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 ③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④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 선고를 받았다.

5.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

근 이사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변호사로서 휴업을 한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② 변호사가 공익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으면 그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 ③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2년 미만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개인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공익적 직무를 위촉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②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성되고,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 전문분야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8.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 ③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당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④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9.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에게 계정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목사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금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

ㄱ. 변호사는 비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甲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ㄴ.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고 또한 실제로 숨기고 있는 실거주지라면 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ㄷ. 변호사 甲은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ㄹ. 변호사 甲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29.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甲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 검증 및 감정료 등 소송 관련 비용 일체는 변호사 甲이 대납한다.
 -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한 것으로 본다.
 - 하자진단은 세대전수조사로 실시하고 하자진단 비용은 3,000만 원으로 하며 변호사 甲이 선지급하고 승소금액에서 정산한다.

- ① 변호사 甲이 소송 관련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 ② 변호사 甲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변호사 甲이 이미 상당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지출했다더라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든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소간주특약이 무효이므로 변호사 甲은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0.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경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 ②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 ③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주사무소가 서울인 법무법인의 강릉분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강릉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31.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32.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윤리장전」상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이익충돌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 ②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의뢰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33.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A 아파트 주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 ①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보는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학력과 환경 분야 전변호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한다.
- ② A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소음 피해에 관한 유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다.
- ③ A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여 홍보한다.
- ④ A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법무법인 L의 명칭, 연락처 및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만 기재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34.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가 무료 또는 부당한 영가의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②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는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하여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그 타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④ 변호사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지만, 광고가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변호사의 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사건의 수임을 위해 변호사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ㄴ. 변호사 乙은 자신의 사건 수임료와 인근 지역의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료를 비교한 표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ㄷ. 변호사 丙은 관할 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범죄유형별로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였다.

ㄹ. 변호사 丁은 법률사무소 광고를 마을버스 내부에 게시하였다.

- ① ㄱ, ㄹ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3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가 사건처리 중에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사건종결로 수임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실의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이를 제출하면 성실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37.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법률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배우자가 판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복을 입은 배우자와 함께 촬영한 대형 사진을 법률사무소의 상담실 벽에 걸어 두는 것은 변호사 광고로 허용된다.
- ④ 변호사의 승소율에 관한 광고는 오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8.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감 중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사이임을 강조하면서 A로부터 담당 재판장과의 사적인 비공개 면담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ㄴ.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담당 재판장을 사적으로 만나 A의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ㄷ.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제비 명목 1,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ㄹ.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A를 위한 법정변론까지 했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3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甲은 A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는데, 추후 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를 통하여 법률의견서를 취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A가 위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도 그 법률의견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률의견서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제3자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에 포함되지만 변호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변호사 乙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B의 변호를 하게 된 경우 B의 처 C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B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0. 변호사의 민사사건 수임과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고,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다.
- ② 제1심 재판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 없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약정을 할 수 있다.
- ④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는 상고심에서의 파기환송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사

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②	②	②	①	①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①	④	①	③	①	②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④	④	④	③	③	①	④	②	④	④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③	③	①	③	②	①	④	④	②